

마사 누스바움의 ‘역량의 창조’ 읽기

함영기

서울특별시교육연수원 교육연구관

“이론은 현실의 중요한 문제를 바라보는 눈을 길러주고 그 핵심 특징을 깨닫게 해주며 특정 정책에 관한 논의를 이끌어낸다. 아무리 똑똑한 행동가라도 이론으로 무장하지 않으면 권력의 중심부에 별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 - 누스바움, 역량의 창조(2015) 서문 중에서(9쪽)

1장 정의를 원하는 여성

이론을 말하는 새로운 접근이 필요하다

“한 국가의 진정한 부는 국민이다. 국민이 오랫동안 건강하고 창의적인 삶을 누릴 환경을 만들어내는 것이 개발의 진정한 목적이다. 이 간단하지만 강력한 진실은 물질적·금전적 부를 추구하는 과정에서 종종 잊히곤 한다.” 마블 올 하크, 1990 유엔개발계획 ‘인간개발보고서’(12쪽)

GDP는 삶의 질을 제대로 보여주는가?

GDP는 부의 분배를 무시하는 단순한 평균치일 뿐만 아니라, 사르코지위원회의 보고서가 보여주듯 외국이 투자로 얻은 이익이 가계의 평균소득을 높이지 못한다.(25쪽)

GDP 접근법을 배우는 교실 풍경 묘사(찰스 디킨스)

“20번 여학생, 돈이 5천만 파운드 있으면 부자 국가라고 할 수 있지요? 여러분은 부자 국가에 사는 거지요?”
“모르겠어요.” “누가 그렇게 많은 돈을 가졌는지, 그 중에 내 것도 있는지 몰라서 대답할 수 없었어. 이제 생각해보니 나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였어. 어차피 내 뭇은 하나도 없을 테니까.”(26쪽)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씨씨 주프의 문제의식에서 출발하는 접근법, 즉 모든 사람에게 삶의 목적을 성취할 길을 열어줘야 한다는 접근법이다. 이 접근법은 현실에 발을 딛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이야기, 정책 변화가 사람의 삶에 미치는 영향 이야기에서 출발한다. 다양한 사람들의 처지에 들어맞는 개발정책은 인간,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치는 수많은 요인에 관심을 기울이며 “각 영역에서 사람이 삶의 각 영역에서

실제로 무엇을 할 수 있고 무엇이 될 수 있는가?”하고 묻는다.(26~27쪽)

2장 핵심역량

역량 접근법은,

- 1) 사람을 목적으로 보면서 총체적 잘살기나 평균적 잘살기가 무엇인지 묻고 사람이 어떤 기회를 활용할 수 있는지 살핀다.
- 2) 선택과 자유를 중요하게 생각하고, 기회와 실질적 자유를 증진하는 사회가 좋은 사회라고 주장한다. 이때 선택과 자유는 오롯이 사람 자신의 몫이다.
- 3) 가치다원주의를 확고하게 견지한다. 사람마다 핵심역량을 달성한 정도는 양적, 질적으로 다르기 때문에 역량을 단일 수치 척도로 환원해 평가하면 반드시 왜곡이 생긴다고 보기 때문이다.
- 4) 사람의 구체적 특징을 이해하는 것이 역량의 성취를 이루는 근본이라고 본다.
- 5) 아주 뿌리 깊은 사회적 부정의와 불평등, 특히 차별이나 소외의 결과인 역량 실패에도 관심을 기울인다. 사람의 역량과 삶의 질을 끌어올리는 것이 정부와 공공정책의 시급한 과제라고 본다.(33-34쪽)

역량이란 무엇인가?

“이 사람은 무엇을 할 수 있고 무엇이 될 수 있는가?”라는 물음에 대한 대답이며 ‘실질적 자유’이자 선택하고 행동할 수 있는 기회의 집합이다. 또한 사람의 역량은 성취할 수 있는 기능의 선택 가능한 조합을 가리킨다. 그래서 역량은 일종의 자유, 즉 선택 가능한 기능의 조합을 달성하는 자유(센, 35-36쪽)이다. 다시 말해 어떤 사람의 고유 역량을 가리키는 동시에 그것과 정치적·사회적·경제적 환경의 조합이 만들어 내는 자유나 기회라 할 수 있다.(35-36쪽)

결합역량, 내적역량

누스바움은 복잡한 역량 개념을 알기 쉽게 설명하기 위해 ‘실질적 자유’를 결합역량으로 부른다. 바산티의 결합역량은 구체적인 정치적·사회적·경제적 상황에서 선택하고 행동할 기회의 총합. 사람의 특성과 결합역량은 밀접한 관련이 있지만 구분되어야 한다. 결합역량은 사람이 지닌 특성의 ‘일부’이다.(36쪽)

고정적이지 않고 유동적이며 역동적인 사람의 상태를 ‘내적역량’이라 부른다. 내적역량은 선천적 능력과 다르다. 훈련되거나 계발된 특성과 능력으로 대부분 정치적·사회적·경제적·가족적 환경과의 상호작용 속에서 길러진다. 바산티의 학습된 정치적 기량이나 바느질 솜씨, 새로 얻는 자신감과 과거에 시달렸던 두려움의 극복 같은 특성이 내적역량의 예이다.(36쪽)

내적역량과 결합역량의 구분은 중요. 이 두 역량은 서로 중첩되지만 엄연히 별개인

품위 있는 사회의 두 가지 과제와 일치한다. 사회는 내적역량을 만드는 데는 능하지만 사람이 내적역량에 맞게 기능할 기회는 열어주지 못할 수 있다.(36-37쪽)

내적역량의 차원에서는 종교의 자유를 누리지만 결합역량의 차원에서는 정부가 종교의 자유를 보호하지 않는 탓에 종교의 자유를 누릴 기회가 없는 사람도 흔히 눈에 띈다. 결합역량은 내적역량에다 기능을 선택할 수 있는 정치적·사회적·경제적 상황을 더한 것으로 정의된다는 점에서 개념상 내적역량을 생성하지 않고 결합역량만 생성하는 사회는 생각하기 힘들다.(37쪽)

기본역량

개발될 수도 개발되지 않을 수도 있는 선천적 역량을 논의해야 한다. 선천적 역량을 드러내게 위해 쓰는 용어가 기본역량(38쪽)이다. 아기가 태어난 뒤에도 잠재력은 물론 이미 환경에 의해 결정된 태아기의 내적역량에도 관심을 기울인다.(39쪽)

역량 접근법은 능력우선주의적 관점, 즉 더 많은 능력을 타고난 사람이 우대받아야 한다는 관점에서 기본역량을 바라보지 않는다. 정반대로 타인의 도움을 받아야 최저 수준 이상의 결합역량을 확보할 수 있는 사람이 우대받아야만 한다고 주장한다.(39쪽)

역량과 기능은 동전의 양면과 같다. 기능은 한 가지 이상 역량의 적극적 실현이며 기능은 역량의 결과물이거나 실현물로서 상태와 행위이다.(40쪽)

역량과 기능을 비교할 때 염두에 두어야 하는 것은 역량이 곧 선택할 기회를 의미한다는 것이다. 선택할 자유 개념이 역량 개념 안에 오롯이 담긴다. 굶주리는 사람과 단식하는 사람은 영양 섭취에 관한 한 똑같은 유형의 기능을 하지만 똑 같은 역량이 있다고 보기는 힘들다. 단식하는 사람은 단식하지 않겠다는 선택을 할 수 있지만 먹을 것이 없어 굶주리는 사람은 굶주리지 않는 선택을 할 수 없기 때문이다.(40쪽)

몇몇 정치적 견해는 국민이 건강하게 살아가고 보람 있는 일을 하고 종교의 자유를 마음껏 누린다면 정부는 제 몫을 다한 것이라고 판단하지만, 역량 접근법은 그렇지 않다. 기능이 아니라 역량을 적절한 정치적 목표로 삼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래야 사람이 자유를 누릴 여지가 생기기 때문이다. 건강을 증진하는 정책과 건강역량을 증진하는 정책 사이에는 도덕적으로 엄청난 차이가 있다. 건강역량을 증진하는 정책은 개인이 선택한 삶의 방식을 존중한다.(41쪽)

10대 핵심역량

광범위한 영역에서 인간존엄성에 초점을 맞추면 장애인을 어린이처럼 수동적 수혜자로 대하는 정책이 아니라, 그들의 행위주체성을 보호하고 뒷받침해주는 정책이 선택될 것이다.(46쪽)

누스바움의 역량 접근법은, 만약 박탈당하면 인간존엄성에 어울리는 삶을 살 수 없을 정도로 중요한 자유의 영역을 보호하는 데 주된 관심을 기울이고, 그보다 덜 중요한 자유의 보호는 일상적 정치과정에 맡긴다. 역량 접근법은 사람들의 현재 선택에서 가치를 도출하지 않으므로, 지지자의 수가 아니라 논거의 질적 수준을 중시한다. 역량 접근법은 정부가 국민에게 품위 있는 삶, 번영하는 삶을 제공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10대 핵심역량의 최저수준을 보장해야 한다고 주장한다.(47-48쪽)

1. 생명 life: 평균수명을 누리며 살 수 있게 해줘야 한다.
2. 신체건강 bodily health: 양호한 건강을 누릴 수 있어야 한다.
3. 신체보전 bodily integrity: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어야 한다.
4. 감각, 상상, 사고 senses, imagination, and thought: 감각기관을 활용할 줄 알아야 하며, 상상하고 사고하고 추론할 줄 알아야 한다.
5. 감정 emotions: 주변 사람이나 사물에 애착을 느낄 수 있어야 한다.
6. 실천이성 practical reason: 선(善) 관념을 형성할 수 있어야 한다. (삶의 계획을 비판적으로 성찰하는 역량)
7. 관계 affiliation: 다른 사람과 더불어 다양한 사회적 상호작용에 참여할 수 있어야 한다. 자존감의 사회적 토대를 만들어주어야 한다. 인종, 성별, 성적 지향, 민족적 배경, 사회계급, 종교, 국적 등에 근거한 차별이 사라져야 한다.
8. 인간 이외의 종 other species: 동식물 등 자연계에 존재하는 모든 것에 관심을 기울이고 관계를 맺으며 살아갈 수 있어야 한다.
9. 놀이 play: 웃고 놀 줄 알아야 하고 여가를 즐길 수 있어야 한다.
10. 환경통제 control over one's environment: 정치적으로 삶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정치적 선택 과정에 효과적으로 참여할 수 있어야 한다. 물질적으로 재산을 소유할 수 있어야 한다.(48-50쪽)

역량은 무엇보다 개인의 것이다. 집단의 역량은 개인의 역량에서만 나온다. 역량 접근법은 사람을 목적으로 대우하라는 원칙을 옹호하고 각 개인의 역량을 만들어내는 것을 목표로 삼는다. 핵심역량의 목록의 각 항목은 이질적이라 어느 하나로 환원될 수 없다.(51쪽)

사회정의를 설명하는 이론인 역량 접근법은 인간존엄성을 존중하기 위해서는 모든 시민에게 10대 핵심역량을 최저수준 이상으로 광범위하게 보장해줘야 한다고 주장한다. 핵심역량 목록은 일종의 제안이다.(52쪽)

역량의 순위 정하기

각 역량은 고유한 가치와 중요성을 지니므로 둘 이상의 역량이 충돌하는 상황은 비극이 아닐 수 없다. 어떤 선택을 하건 적어도 한 가지 역량은 보장받지 못하기 때문이다. 표준적인 비용-편익 분석으로는 이처럼 비극적 선택을 해야 하는 상황을 제대로 파악할 수 없다. 핵심역량의 최저수준 보장은 기본적 정의에 뿌리를 둔 권리다. 이 같은 비극적 상황은 어떤 상황에서나 완벽한 순위를 정해야 한다고 교육하는 표준적인 경제적 접근법의 결함을 드러낸다.(53쪽)

각 역량의 최저수준이 적절하게 준수되었다는 가정 하에 비극적 선택을 해야 하는 상황이 닥치면 우리는 다음과 같이 물어야 한다. ‘아주 고약한 상황이다. 사람은 인간존엄성에 어울리는 삶을 살지 못하고 있다. 지금은 아니더라도 미래에는 모든 역량이 실현되도록 하려면 어찌해야 할까?’ 역량 접근법이 널리 인정받는다면 비극적 선택을 해야 하는 상황이 펼쳐질 때 지금처럼 수수방관하는 일이 없을 것이다. 지금 당장은 역량의 최저수준을 보장해줄 수 없더라도 그것에 더 가까이 다가갈 방법을 고민할 것이다.(54-55쪽)

10대 핵심역량의 각 항목은 서로를 뒷받침해주는 관계다. 그중에서 특히 두 역량은 다른 역량을 체계화하고 다른 역량 안으로 녹아들어간다는 점에서 독특한 구조적 역할을 하는데, 관계역량과 실천이성역량이 그 주인공이다.(55쪽)

역량의 최저수준

10대 핵심역량 목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최저수준 개념이다. 역량 접근법은 부분적 사회정의 이론으로서 모든 분배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주장하지 않는다. 다만 광범위한 사회적 최저수준을 구체적으로 보장하려고 노력할 뿐이다.(57쪽)

사회정의의 최저수준을 정할 때 생각해야 할 또 하나의 문제는 공상적 이상주의에서 비롯된 극단론이다. 한쪽 극단에서는 사회정의의 최저수준을 너무 높게 정해 세계 그 어떤 국가도 달성하지 못하게 하는 일이 벌어지고 있다. 다른 한쪽 극단에서는 사회정의의 최저수준을 너무 낮게 정하곤 한다. 이럴 때는 최저수준의 달성은 쉽지만 자칫 인간존엄성이 요구하는 수준에는 못 미칠 수 있다.(59쪽)

생산적 기능

생산적 기능은 다른 역량의 수준을 한층 더 끌어올리는 구실을 한다. 울프와 드살리트는 무엇보다도 관계역량이 여러 영역에서 다른 역량의 형성을 도와주기 때문에 생산적 기능이라고 말한다.(62쪽)

유해한 약점

유해한 약점은 생산적 기능과 정반대되는 개념으로 역량을 빼앗겨 삶의 여러 영역이 엄청난 악역향을 받는 것을 뜻한다. 바산티 이야기에서는 가정폭력에 시달리는 것이 유해한 약점의 구실을 했다. 가정폭력으로 바산티는 '신체보전'이라는 측면에서 보호받지 못해 건강과 정서적 행복역량, 관계와 실천이성역량 등이 손상될 위험에 처했다.(62쪽)

최우선적 보호

10대 역량을 놓고 최우선으로 보장할 역량의 순위를 매겨야 하는 불가피한 상황도 있을 수 있다. 그럴 때는 생산적 기능과 깊이 관련되고 유해한 약점을 제거하기 쉬운 역량을 최우선적으로 보호해야 한다. 이 같은 원칙을 세워두면 비극적 선택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닥쳤을 때(최소한 자원을 집중 투자하는 것이 최선의 대안일 때) 상당히 도움이 된다.(63쪽)

3장 여러 가지 접근법

GDP 접근법

(의의) 측정하기가 비교적 쉽다. 투명하다는 점에서도 매력적이다. 경제성장은 국가가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가는 최소한의 한 걸음이 될 수 있으므로 경제성장 성과를 적어도 한 국가나 지역의 성과에 대한 상대지표로 보는 것은 합리적이다.(66-67쪽)

(문제점) 세계화시대에는 1인당 GDP의 증가와 1인당 실질적 가계소득의 증가는 긴밀한 상관관계가 없다. 평균개념에 바탕을 둔 모든 접근법과 마찬가지로 GDP 접근법도 분배를 전혀 고려하지 않는다. 1인당 GDP는 부가 어디에 있는지, 누가 부를 지배하는지, 부유하지 않은 사람은 어떻게 사는지 알려주지 않는다. GDP 접근법은 삶의 질의 요소가 어떻게 다른지 알려주지 않는다. GDP 접근법은 경제만 탄탄하면 중국처럼 되는 것도 괜찮다고 본다. 1인당 GDP만 꾸준히 증가하면 정상적으로 발전하는 국가로 보기 때문에 당장 해결해야 할 시급한 문제를 간과하게 만든다.(68-70쪽)

공리주의 접근법

(의의) 공리주의 접근법은 국민의 삶의 질을 총효용이나 평균효용을 잣대로 측정한다. 여기서 효용이란 선호를 충족시키는 수준을 말한다. 공리주의 접근법은 사람이 자신의 삶을 어떻게 느끼느냐로 삶의 질을 측정하므로 사람에게 관심을 기울인다는 장점이 있다.(70-71쪽)

(문제점) GDP 접근법과 마찬가지로 삶을 뭉뚱그려 이해한다. 최하위 계층이 극심한

고통을 겪더라도 대다수가 잘살면 국가 전체의 평균 효용이나 총효용은 높아질 수 있다고 생각한다. 노예제와 고문을 금지하지만 인도주의적 이유로 금지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의 총만족 수준을 높이는데 비효율적인 방법이라는 불분명하고 경험적인 이유에서 금지할 뿐이다. 삶의 구성요소를 하나의 단위로만 측정한다. 공리주의자가 다목적 척도로 사용하는 '만족'이라는 용어는 '쾌락'이라는 용어가 그렇듯 모든 삶은 균일하고, 그래서 하나의 단위로 측정할 수 있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공리주의 접근법은 사람에게 관심을 기울이는 것 같지만 그 수준이 별로 깊지 않다. 현실의 선호를 얼마나 잘 충족하는가의 관점에서 사회적 목표를 정하는 공리주의 접근법은 불공정한 기존 질서를 강화하곤 한다. 정리하자면 공리주의 접근법은 자유를 과소평가한다. 선택하고 행동할 자유는 수단일 뿐 아니라 그 자체가 목적이다. 표준적인 공리주의 접근법은 이 측면을 포착하지 못한다.(71-76쪽)

자원 중심 접근법

(의의) 자원 중심 접근법은 GDP 접근법을 평등주의 관점에서 재해석한 접근법이다. 분배에 큰 관심을 기울인다.(77쪽)

(문제점) 자원, 즉 소득과 부는 사람이 실제로 무엇을 할 수 있고 무엇이 도리 수 있는가를 뜻하는 역량을 대신하지 못한다. 뿌리 깊은 사회적 불평등에서 연유하는 차이 역시 자원을 기능으로 전환하는 능력의 차이를 낳는다. 소외당하고 예측당하는 집단의 정당한 함의를 무시하는 국가에 높은 점수를 주기도 한다.(77-78쪽)

인권 접근법

(의의) 역량 접근법과 인권 접근법 밑바탕에는 사람에게 몇 가지 핵심 권리가 있고 사회는 이 핵심 권리를 존중하고 지지해야 한다는 생각이 깔려 있다. 역량과 인권 모두 문화를 교차 비교할 근거를 제공하고 헌법에서 보장되어야 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려준다는 점에서 유사한 역할을 한다.(83쪽)

역량 접근법

역량 접근법은 기본적 인권 개념에 대해 철학적으로 명확하고 명료한 태도를 보일 뿐 아니라 구체적으로 정리해 설명하는 힘이 있기 때문에 몇 가지 점에서 표준적 인권 접근법을 보완할 수 있다. 표준적 인권 접근법보다 인권과 인간존엄성 사이의 관계를 훨씬 알기 쉽게 설명한다. 더불어 인간의 권리와 인간이 아닌 종의 권리의 관계도 명확하게 설명할 수 있다. 역량 접근법은 인간의 권리와 의무의 관계를 뚜렷하게 보여준다.(84쪽)

역량 접근법은 기본적 정의에 뿌리를 둔 근본 권리를 강조한다.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건 인간다운 대우를 받아야 한다는 정당한 외침이 있다는 사실을 상기시킨다.

아무리 GDP나 1인당 GDP, 총효용이나 평균효용의 극대화를 추구하는 사회라 해도 이 다급한 외침을 모독해서는 안 된다.(89쪽)

4장 근본권리

“이론적 견해를 제시하는 사람은 자신의 논거를 개괄적으로 설명한 뒤 그 견해가 매우 강력한 윤리적 직관 및 판단과 어울린다는 것을 보여주는 분명한 사례를 제시해야 한다.”(99쪽)

자유와 내용

왜 몇몇 역량은 모든 국가에 중요하다고 주장하고 국제무대에서 그것을 옹호해야 하는가?

첫째, 자유의 증진이 일관된 정치적 프로젝트가 될 수 있는지 분명치 않기 때문이다. 어떤 자유는 다른 자유를 제한한다. 정치 캠페인에 거액을 기부할 부자의 자유는 투표권의 동등한 가치를 제한할 수 있다.

둘째, 모든 자유를 바람직한 사회적 목표로 간주하는 일관된 정치적 프로젝트가 있더라도, 역량 접근법의 정치적·윤리적 목표를 받아들이는 사람이 그 프로젝트를 반드시 지지해야 하는지가 분명하지 않기 때문이다. 남성의 자유를 제한하지 않으면 젠더 정의는 제대로 보장받지 못한다. 요컨대 평등이나 광범위한 사회적 최저수준을 추구하는 사회는 여러 방식으로 자유를 제한할 수밖에 없다. 이때 유익하지 않은 자유가 주로 제한된다. (92-93쪽)

공정한 정치를 지향하는 모든 사회는 인간의 자유를 핵심적인 것과 부차적인 것, 이로운 것과 해로운 것, 특별히 보호할 가치가 있는 것과 보호할 가치가 없는 것으로 나누어 평가해야 한다.(94쪽)

10대 핵심역량 목록은 다양한 역할을 한다. 우선 헌법을 제정하거나 해석하는 기준인 정치적 원리의 기준이 된다. 인도의 경우 교육과 인간존엄성 사이의 관계를 명확히 밝힌 법원의 판결을 계기로 초중등 의무교육을 보장하는 헌법 개정이 이루어졌다.(95쪽)

역량 접근법이 자유의 내용에 관심을 기울여야 하는 이유가 하나 더 있다. 그 이유는 정치적 자유주의의 철저함에서 비롯된다. 품위 있는 사회의 정치적 원리는 다양한 포괄적 교설(톨스의 표현으로 종교, 철학, 도덕, 가치관 등을 말한다)을 존중하며 포괄적 교설 간 중첩적 합의를 목표로 삼는다.(96쪽)

역량 접근법은 시민에게 특정 종교적·형이상학적 견해에 뿌리를 둔 정치적 교설을

지지하라고 요청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시민을 존중하는 ‘정치적 자유주의’의 한 형태이다.(99쪽)

완전정보하의 욕구 복지주의

역량 접근법은 철학에서 널리 알려진 정교한 공리주의와 어떻게 다른지, 그 중 선호는 왜곡되기 쉬우므로 수없이 수정해야 한다는 다수의 견해에 대하여 알아보자. 이들 견해는 대체로 완전하고 포괄적인 정보를 바탕으로 선호를 수정할 수 있을 때 어떤 선호가 드러나는지 묻는다는 점에서 ‘복지주의적 견해’라고 부르는 것이 타당하다. 달리 말해 “진정한 실제 선호를 알게 되었다. 잘못된 정보에서 얻어낸 선호보다 완전정보하에서 얻어낸 선호가 그들의 진정한 선호일 것이다”라고 말할 수 있는 한, 복지에 대한 선호에 토대를 둔 견해라고 부를 수 있다.(102쪽)

하사니, 브랜트, 햄턴은 도덕적으로 받아들여질 만한 결론을 이끌어내기 위해 공리주의에서 벗어나 역량 접근법의 핵심을 이루는 도덕적 요소 몇 가지를 덧붙였다. 인간의 동등한 존엄성 개념, 실천 이성이 대단히 중요한 역량이라는 생각, 누구도 타인의 근본권리를 제거할 권리가 없다는 생각 등이 그것이다. 이렇듯 도덕적 요소를 덧붙이는 방법으로 수정하면 공리주의의 한 갈래인 욕구 복지주의도 역량 접근법만큼 만족스러운 이론이 되는가? 누스바움은 그렇지 않다고 생각한다. 모든 공리주의 견해는 도덕적 요소를 집어넣어 제약을 가한다 해도 이질적 삶의 요소를 하나로 종합하려는 시도의 태두리를 벗어나지 못하고, 그 결과 최상의 사회적 총합 또는 평균을 추구하겠다는 약속으로 귀결된다.(104쪽)

별도의 사회정의 이론이 없다면 불공정하거나 부당한 계급질서에 적응했을 때 나타나는 선호를 알아내기란 불가능에 가깝다. 공리주의 접근법은 사회정의 이론을 제시하기를 거부한다. 욕구는 선에 관한 정보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인격의 이지적이고 해석적인 측면이다. 무엇보다 욕구는 우리가 지지하는 견해가 안정적인 수 있는지 알아내는 데 도움을 준다. 어떤 견해가 안정적인 수 있다고 밝히는 것은 그 견해를 수용 가능한 정치적 견해로 정당화하는 과정의 일부다.(105쪽)

사회계약론적 견해: 롤스

롤스 스스로 인정했듯이 사회계약론의 가정은 네 가지 골치 아픈 문제를 낳았다. 미래 세대의 정의 문제, 국가 간 정의 문제, 장애인을 공정하게 대우하는 문제, 인간 아닌 동물의 대우와 연관된 도덕적 문제가 바로 그것이다. 장애인을 공정하게 대우하는 문제와 인간 아닌 동물의 대우와 관련된 도덕적 문제를 설명하지 못한다는 점은 롤스의 정의이론에 담긴 심각한 약점이다.(106쪽)

칸트는 높은 수준의 도덕적 합리성을 발휘하는 인간만 존중받을 가치가 있을 뿐 중중

의 인지장애인은 존중받는 대상이 되지 못한다고 말했다. 고전적 사회계약론은 기존의 모든 사회구조가 부, 신분, 계급, 특권에 따른 인위적 위계질서의 지배를 받는다는 관찰에서 출발한다. 이어 이런 인위적 위계질서를 모두 제거하면 인간은 어떤 사회를 선택하게 될지 묻는다. 롤스의 정의 이론을 비롯한 모든 사회계약론은 계약 당사자의 신체적·정신적 능력이 대체로 동등하다고 가정한다. 사람이 사회를 이루어 살아가는 원동력을 이타주의, 즉 타인에 대한 사랑이 아니라 이익으로 본다.(107-108쪽)

그러나 계약 당사자가 대체로 동등하고 계약을 통해 서로 이익을 본다는 사회계약론의 가정으로는, 아무리 소득과 부를 재분배한다 해도 바로잡을 수 없을 만큼 권력과 부의 불평등이 심각한 상황에 대처하기 힘들다.(108-109쪽)

누스바움은 지각능력에서 유래하는 행위주체성이 있고, 생존 욕구를 보이는 존재는 정의이론을 이해하거나 평가할 능력이 있건 없건 정의 문제가 제기될 수밖에 없으며 정치적 정의이론의 주체가 될 수 있다고 주장한다.(109쪽)

정치적 자유주의와 중첩적 합의

모든 정치적 견해는 도덕적 문제를 바라보는 태도가 분명해야 하고 공정함, 인간존엄성의 동등한 존중 같은 명확한 가치를 정치적 원리의 기초로 삼아야 한다. 시민에게 요구되는 것은 정치적 원리인 역량 접근법의 기본 개념을 정치적 목적으로만 승인하고 정치의 영역에서 기능하는 것으로 여기되 포괄적 삶의 지침으로 이해하며 승인하는 것은 삼가는 자세다.(112쪽)

중첩적 합의는 자신과 생각이 다른 사람을 억압하라고 요구하지 않는다. 어느 사회에나 지배적인 정치적 교설의 특정 측면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 이를테면 여성에게도 동등한 투표권을 주자는 주장에 반대하는 사람이나 인종분리정책을 지지하는 사람이 꼭 있기 마련이다. 이런 사람도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폭력적 소요사태를 불러일으키지 않는 한 사회 속에서 계속 살면서 자기 생각을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어야 한다. 상당한 시간이 흐른 뒤에는 현대 사회의 주요 포괄적 교설 대부분은 롤스와 누스바움이 인정하는 정치적 원리를 지지한다는 사실이 밝혀질 것이다.(112-113쪽)

역량 접근법은 중첩적 합의의 대상이 되기를 바라는 정치적 교설이다. 그 어떤 포괄적인 윤리적 교설도 권장해서는 안 된다. 역량 접근법을 세계주의의 한 형태로 봐서도 안 된다. 누스바움의 역량 접근법은 종교적·세속적 교설의 다원성 존중을 핵심 목표로 삼고 있다.(115쪽)

결과주의와 의무주의

결과주의 접근법은 먼저 무엇이 선인지를 정한 뒤 그 선의 관점에서 올바른 선택을

정의한다고 할 수 있다. 반면에 의무주의 접근법은 무엇이 의무인지, 무엇이 올바른 행동인지를 먼저 정한 다음 올바른 행동인 한에서만 선을 추구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칸트는 존중과 공정함에 바탕을 둔 도덕성을 충족시킬 때에만 도덕적 행위주체는 행복을 추구할 수 있다고 보았다.(116쪽)

역량 접근법은 의무주의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 의무주의에서 가장 비중 있는 역사적 선조 중 한 명이 칸트다. 의무주의는 사람의 근본권리를 침해하면서까지 사회복리를 추구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한다.(116쪽)

역량 접근법은 의무주의자가 곧잘 선호하는 절차주의적 관점과 선명하게 대비되는 결과 지향적 관점이라고 할 수도 있다. 롤스가 든 예를 보자. 케이크를 공정하게 나눠 먹을 때, 케이크 분배의 공정함을 따지는 한 가지 방법은 그 결과를 살펴보는 것이다. 각자가 균등한 몫을 먹으면 공정한 분배가 이뤄졌다고 할 수 있다. 분배의 공정함을 따지는 또 한 가지 방법은 분배 절차를 살펴보는 것이다. 케이크 자르는 순서를 정한 다음 먼저 자른 사람에게 나중에 먹으라고 해도 공정한 분배가 이루어질 수 있다.(117-118쪽)

롤스의 정의이론은 절차를 중시하는 두 번째 방식의 분배를 더 선호한다. 역량 접근법에 따르면 우리가 어떤 사회를 놓고 ‘최소한 공정한 사회라고 할 수 있는가?’라고 물을 때 집중적으로 살펴봐야 하는 것은 역량이 확실하게 보장되었는지 여부다. 그러나 결과를 기준으로 정의를 평가한다고 해서 역량 접근법이 결과주의의 한 갈래가 되는 것은 아니다. 역량 접근법은 무엇이 사회적 선인지 알려주는 포괄적 견해가 아니라 구체적인 정치적 권리에 관한 부분적 설명이다.(118쪽)

정치적 감정과 안정성 문제

역량 접근법은 사회계약이 계약 당사자 서로에게 이익이라는 생각(고전적 사회계약론)에 기대지 않는다. 누스바움의 역량 접근법은 이타주의에 의지한다. 이타주의적 행동 동기가 왜, 어떻게 생기는지 그리고 이타주의 행동 동기와 경합하는 다른 행동 동기는 무엇인지, 사회에 유익한 방향으로 이타적 감정을 증진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두고 많은 이야기를 해야 한다.(119쪽)

이 과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가족, 사회규범, 학교에 관해 그리고 정치제도가 시민을 정치에 끌어들이는 방식에 관해 깊이 생각할 필요가 있다. 시민은 정치적 감정을 어떻게 표출하는지, 정치적 감정의 구조는 무엇인지, 정치적 감정이 어떻게 상호작용하는지 등도 개념적으로 따져봐야 한다.(119쪽)

역량의 이행

역량 접근법의 목표를 달성하는 방법에 대하여 알아보자. 먼저 핵심역량 목록에 등장

하는 모든 역량은 똑같이 중요하므로 그중 어느 하나를 다른 것보다 우위에 놓으면 완벽한 정의를 달성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헌법의 설계 방법 및 제도적 구조에 관해서도 몇 가지 권고를 한다. 핵심역량의 여러 영역에서 특정 기능을 강요하는 대신 선택할 기회를 주는 목표를 세워야 한다고 정책결정자에게 권고한다. 역량 이행에 관한 심층적 권고는 상당 정도 맥락의존적이다. 역량은 고립된 원자 같은 것이 아니다. 하나가 다른 하나의 실마리 구실을 하며 상호작용하는 많은 기회의 집합이다.(120쪽)

모든 국가에서 교육은 생산적 역량 중 하나로 선택된다. 교육을 받으면 취업 기회에 한 걸음 다가서거나 정치적 목소리를 낼 수 있다. 재산권은 또 하나의 생산적 역량이다. 마지막으로 관계 역량이 생산적 역량의 구실을 한다. 어떤 사회든 유해한 약점의 유형을 찾아낸 뒤 거기에 희소 자원을 최우선으로 투자해야 한다.(122쪽)

5장 문화의 다양성

역량 접근법과 인권의 관계

인권 운동은 모든 사람에게 근본권리가 있다는, 가장 보편적이고 영향력 있는 견해지만 그 뿌리는 서구사회다. 아쉽게도 전 세계 발전경제학계에서는 ‘제국주의’를 거론하며 인권에 거부감을 갖는 흐름이 아직도 강력한 영향력을 발휘한다. 역량 접근법은 현실에 근거한다. 또한 인권 운동과 달리 아주 심오한 이론적 개념을 동원하지도 않는다. 그 대신 현실 속 사람이 일상적 삶의 다양한 맥락에서 자신과 타인에게 던지는 물음, 곧 “나는 무엇을 할 수 있고 무엇이 될 수 있는가?”, “나는 현실적으로 무엇을 선택해야 하는가?”에 대답한다. 역량 접근법은 현실에 발을 딛고 있기 때문에 인권과 제국주의를 둘러싼 혼란스러운 추상적 논쟁을 얼마든지 피해 갈 수 있다.(126-128쪽)

역량 접근법과 문화적 다원주의

다원주의와 문화적 가치의 문제를 살필 때 어떤 문화도 단일체가 아니라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한 문화의 바로 ‘그’ 견해에 관한 적절한 경험적 설명을 듣고 싶다면, 전통적 설명이 도외시하기 쉬운 소수자, 여성, 농민 등의 견해를 찾아봐야 한다. 역량 접근법은 인간존엄성 개념을 지침으로 활용하면 전통 속에 담긴 다양한 입장을 평가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129쪽)

역량 접근법은 문화적 다원주의를 반영하기 위해 노력한다. ① 핵심역량 목록은 인간존엄성 개념에 관한 비판적·규범적 논증의 결과물이다. 핵심역량 목록은 제약을 두지 않는다. 지속적 수정과 점검의 대상이다. ② 역량 접근법은 10대 핵심역량 목록의 각 항목을 추상적으로 또 일반적으로 설명한다. ③ 핵심역량 목록은 롤스의 말을 빌리면 외따로 있는 ‘불완전한 도덕 개념’의 일부다. 핵심역량 목록은 정치적 목적으로 등장한 것일 뿐 문화와 종교를 기준으로 사람을 편 가르는 형이상학적 개념에 뿌리를 둔

것은 아니다. ④ 역량 접근법은 모든 시민의 10대 핵심역량을 최저수준 이상으로 끌어올리는 것은 정부의 임무라고 본다. ⑤ 다원주의에 필요한 자유가 핵심역량 목록의 항목으로 자리 잡고 있다. ⑥ ‘식민주의’ 비판자는 핵심역량 목록 작성자의 의도에 의구심을 품는다. 역량 접근법은 내정 개입 행위를 결코 용납하지 않는다.(130-133쪽)

6장 국가와 국제 정의

국가와 역량 접근법

국가는 역량 접근법에 단단히 기초한 도덕적 역할이 있다. 그러나 정의의 관점으로 오늘날의 세계를 들여다보면 기본적 삶의 기회부터 불평등하다. 불평등이 존재한다는 간단한 사실 자체가 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해 노력해야 할 충분한 이유가 된다.(139-140쪽)

세계경제는 부유한 국가와 거대기업의 지배를 받고 있다. 세계은행과 IMF의 정책이 보여주듯 글로벌 경쟁의 규칙 역시 여러 면에서 부유한 국가에 유리하다. 세계시민이 품위 있는 삶을 누릴 권리가 있다면 그에 상응하는 의무도 있어야 한다. 이때 의무를 짊어질 것인가? 부유한 국가는 적어도 GDP의 2%를 가난한 국가를 원조하는데 지출해야 한다. 더불어 다국적 기업, 국제기관, 국제협약, 비정부 기구 등도 일정한 역할을 하며 세계시민의 역량을 보장하는 데 힘써야 한다.(141-142쪽)

글로벌 정의와 역량 접근법

칸트와 롤스의 2단계 협상: 각 국가는 첫 번째 단계에서 국내에 적용할 글로벌 정의의 원리를 정한 뒤, 두 번째 단계에서는 대표를 보내 협상을 벌인다. 경제적 분배에 관한 협정을 비롯한 그 어떤 협정도 문제 삼지 않는 상태에서 진행되는 2단계 협상은 국민이 아니라 국가 간 협상인 데다 각 국가 내부의 의무와 기회를 바꿀 수도 없기 때문에 한계가 분명하고 내용도 빈약하다.(142-143쪽)

결과주의자도 글로벌 정의를 달성하는 방법을 논한다. 개인의 자선행위로 글로벌 정의를 해결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이 같은 접근법은 공리주의 접근법과 결과주의 접근법의 문제점이 고스란히 담겨 있다. 삶의 전 공간이 공리주의적 도덕에 함몰되고 만다. 민간 부문의 기부 활동은 나름대로 생산적 기능을 한다. 그러나 특정 형태의 민간 부문 기부 활동이 동등한 존중이나 역량 강화 같은 지극히 중요한 가치를 증진하는 데 도움이 되는지는 따져볼 점이 많다.(144-145쪽)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글로벌 문제의 제도적 해법이다. 제도에 의지하지 않는 글로벌 문제의 핵심은 쉽게 극복하기 힘든 실천적·개념적 난관에 직면하게 된다. 핵심역량을 보장하기 위한 국제협정을 비준하라고 각 국가를 설득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역량

접근법은 글로벌 문제의 해법을 아직 제대로 이론화하지 못했다. 해법을 찾아내는 것이 우리의 향후 과제다.(146-148쪽)

7장 역량 접근법의 철학적 뿌리

역량 접근법의 뿌리

역량 접근법이 깊게 파고드는 근본권리와 정의 문제는 사람이 어떤 기회를 누리느냐 하는 문제와 깊이 관련된다. 철학적 뿌리를 소개하는 것은 역량 접근법을 정당화하기 위해서가 아니다. 역량 접근법은 깊은 호소력이 있기 때문에 포괄적 가치관을 수용하는 사회에서는 충분히 중첩적 합의의 대상이 된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다.(150-152쪽)

아리스토텔레스와 스토아학과

아리스토텔레스는 여러 저서에서 역량 접근법의 선천적 역량, 계발된 내적역량, 결합 역량 등과 대체로 일치하는 다양한 차원의 인간역량을 이야기했다. 아리스토텔레스의 사상에서도 역량 접근법과 마찬가지로 다양한 목표를 단 하나의 잣대로 비교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이른바 통약불가능성 문제가 대단히 중요하다.(152-153쪽)

아리스토텔레스는 플라톤의 국가가 시민 중 일부를 항구적으로 예측하고 사회의 번영을 추구하려 한다는 점을 지적하며 플라톤의 공동 번영 개념을 거부했다. “도시는 본질적으로 다원적이다.... 개개인의 선이 각각을 보존하는 것이다.” 아리스토텔레스가 정치사상사에서 중요한 위치를 점하는 이유는 선택을 이해하고, 사람의 허약성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함을 연관시켰기 때문이다. 그는 시민이 자신의 선택에 어울리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역량을 길러주는 것이 정부가 해야 할 일이라고 보았다.(154-155쪽)

아리스토텔레스의 철학사상은 몇 가지 중대한 한계가 있다. ① 시민이 번갈아가며 지배자와 피지배자 자리에 놓여야 했다는 점에서 그가 이상으로 생각한 도시는 민주적이었지만, 정치에 참여하는 집단의 범위는 대단히 협소했다. ② 사람은 평등하며 모든 사람은 성별, 계급, 민족의 차이에 상관없이 존중받아야 된다고 생각하지 않았다. ③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에 관한 포괄적 견해는 사람마다 다르므로 정부가 선택의 기회를 제공해 다양성을 존중해야 한다는 생각을 떠올릴 수 없었다.(155쪽)

스토아학파는 아리스토텔레스의 철학사상에 담긴 이 세 가지 중대한 결함 중 첫 번째와 두 번째 결함을 바로잡았으나 세 번째 결함을 바로잡지는 못했다. 스토아학파는 모든 사람은 사람이기 때문에 존엄하고 존중받을 가치가 있다고 가르쳤다. 스토아학파는 남성과 여성, 노예와 자유민, 신분이 고귀한 사람과 비천한 사람, 부유한 사람과 가난한 사람 할 것 없이 모든 사람에게는 도덕능력이 있다고 주장하였다. 스토아학과

가 강조한, 모든 사람이 동등하게 존중받아야 한다는 생각은 ‘자연법’, 즉 실정법 영역 밖에 있는 사람에게도 지침으로 적용되어야 하는 도덕법의 핵심이다.(156쪽)

스토아학파는 존엄성은 중요하나 물질적 조건은 중요하지 않다고 가르쳤다는 점에서 외적 제도가 어떤 제약을 가하건 내면의 정신은 언제나 자유로울 수 있다고 주장할 소지가 다분했다.(158쪽)

17세기와 18세기: 자연법 사상

스미스는 “가난이 성관계와 출산까지 가로막는 것은 아니지만 자녀 양육에 불리하게 작용하는 것만은 분명하다. 흙이 차갑고 날씨가 나쁘면 나무는 금방 말라 죽는다”라는 말은 남겼다. 『국부론』의 다른 부분에서도 임금만으로 먹고살기 힘든 계급은 모두 ‘가난과 기근, 높은 사망률’로 고통을 겪는다고 설명했다. 이러한 이야기는 스미스가 스토아학파와 사상적으로 단절한 뒤 사람의 기본욕구에 관한 아리스토텔레스의 설명을 받아들여 발전시켰음을 보여준다.(162쪽)

스미스는 역량 접근법의 핵심을 두루 깨우친 인물이었다. 인간능력은 초기 형태로 또는 미계발된 형태로 세상에 모습을 드러내기 때문에 인간존엄성에 어울리는 수준으로 성숙하려면 주변 환경이 신체적 건강과 정신적 발달 등을 도와야 한다고 정확히 이해했다.(164쪽)

미국의 『독립선언서』는 정부의 임무를 다음과 같이 못 박았다. “우리는 다음 사실을 자명한 진리라고 생각한다. 즉 모든 인간은 평등하게 태어났고 창조주는 생명권, 자유권, 행복추구권 등 양도 불가능한 권리를 인간에게 부여했다. 이제 인간은 이 양도 불가능한 권리를 확보하기 위해 정부를 조직했다. 정부의 합법적인 권력은 인민의 동의로부터 유래한다.” 더 나아가 임무를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는 정부는 언제든지 바꾸고 뒤엎을 수 있다고 딱잘라 말했다.(165쪽)

19세기와 20세기: 공리주의와 자유지상주의에 맞선 역량 접근법

오늘날 미국에서는 인간역량을 둘러싼 논의가 활발하지만, 그 뿌렸한 조짐은 19세기 영국에서 이미 나타났다. 존 스튜어트 밀은 여러 저서에서 정치적 자유와 인간개발 사이의 관계를 명확히 밝혀냈고, 여성이 기회의 차별 때문에 피해를 본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밀의 사후에는 영국 자유당을 돕던 철학 교수 T. H. 그린의 인간역량 개념을 폭넓게 정의하며 다양한 활동을 펼쳤다. 무엇보다도 아리스토텔레스의 사상을 근거로 모든 사람이 사회적으로 충분한 보호를 받는 가운데 다양한 선택을 할 수 있는 조건을 만들어내는 것이 자유를 보장하는 올바른 방법이라고 주장하며 공리주의와 자유지상주의를 거부하는 데 앞장섰다. 무상의무교육법, 공장안전규제법, 노동시간제한법, 아동노동금지법 등을 지지했다... 그런은 여성도 남성과 동등하게 교육받을 권리가 있다

고는 했으나 여성의 참정권은 지지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밀을 뛰어넘지 못했다.(168-169쪽)

역량 접근법의 뿌리를 이루는 사상은 미국으로 건너와 뉴딜 시대와 '위대한 사회' 시대에 노동권을 보호하는 다양한 입법, 의무교육제도 확립, 가난한 가정 어린이의 교육에 대한 지원, 차별에 취약한 소수자 보호정책 수립에도 막대한 영향을 미쳤다.(170쪽)

'위대한 사회'란 미국의 존슨 대통령이 1960년대에 추진한 빈곤추방정책과 경제번영정책을 말한다. 미국 내부의 사회적·경제적 문제는 연방정부의 정책으로 해결될 수 있다는 믿음을 토대로 했다. - 옮긴이(170쪽)

8장 역량과 현대의 여러 쟁점

사회적 약자

역량 접근법은 지금까지 각각 고립적으로 연구되던 여러 문제를 바라보는 통일된 새로운 관점을 약속한다... 소득으로 빈곤을 측정할 때 나타나는 특별한 어려움은 가구당 이용 가능한 소득을 측정하는 일이다. 소득에 초점을 맞추면 영양, 건강보험, 다른 빈곤의 측면에서 나타나는 성적 차이를 소홀하게 된다. 반대로 빈곤을 역량의 실패 사례로 바라보면 개개인이 어떻게 지내는지와 가정의 분배적 불평등에 초점을 맞추게 해준다. 또 역량 접근법은 소득 계산 시 소득으로 간주되지 않은 가사노동의 가치를 인정해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이 문제는 상대적인 불이익을 평가하는 데 주요 이슈다.(172-173쪽)

셴은 식량 부족이 기아의 원인이 아니라, 필요한 재화를 얻기 위한 기회 부족의 문제라고 강조한다. 그러므로 식량원조나 분배로 기아 문제가 타개될 수 없다. 진짜 해법은 취약 인구의 역량 실패 문제를 거론하고 고용과 생필품을 얻을 수 있는 자원을 제공하는 데 있다.(173쪽)

사회적 약자가 처한 상황은 다양하며, 다양한 측면이 개입함에 따라 서로에게 독립적으로, 소득과 부와 무관한 채로 의미심장하게 달라진다.(173쪽)

사회적 약자에 대한 분석과 연동해서 볼프와 드살리트는 접근방식을 두 방향으로 확대한다. 첫째, 그들은 주요 역량의 출현과 부재만이 아니라 역량의 안전에 초점을 맞춘다. 사람들은 오늘의 역량만을 가져서는 안 된다. 내일도 역량이 있을 것이라는 안전한 기대가 필요하다. 둘째, 볼프와 드살리트는 각 역량의 개별적인 중요성에 집중하고 있지만 또 다른 불이익을 산출하는 역량을 고려하면서 불이익이 어떻게 한데 묶이는지, 따라서 어떻게 특별한 역량이 다른 사람에게 개방될 때 결실을 맺는지 연구하

기를 추천한다.(174쪽)

관계역량이 생산적 결과를 낳는다. 고립된 처지에서는 그 어떤 역량도 실현하기 힘들다.(174-175쪽)

젠더

역량 접근법은 여성불평등 문제를 중요하게 본다. 여성불평등은 대단히 중요한 본질적 문제이기 때문이다. 아울러 여성불평등 문제는 표준적 발달 접근법(GNP 접근법)이 부적합하며, 왜 역량 접근법이 더 뛰어난지를 생생하게 보여주는 리트머스 시험지이기 때문이다. 여성불평등 문제를 살피면 가정을 사회정의가 미치지 않는 '사적 영역'으로 바라보는 고전적 자유주의의 결함을 알 수 있다.(175쪽)

인도에서는 여성의 전통적 역할에 도전하고 자주성과 평등 메시지를 알리는 여성 단체를 정부가 앞장서 지지하는데, 실천이성 역량과 관계역량이 정치적으로 중요하다는 관점에서 볼 때 얼마든지 정당화될 수 있는 정책이다.(177쪽)

장애인과 노인 그리고 보살핌의 중요성

장애 문제에는 여러 측면이 있다. 그중 하나가 동등한 존중 개념을 토대로 장애인의 역량을 지원하는 일이다. 다시 말해 장애인을 정상인과 동등하게 대우하고자 할 때 장애인이 필요로 하는 사회적·경제적 지원은 무엇인지, 장애인이 어떤 유형의 직업적 응력을 갖춰야 하는지, 장애인의 사회적·시민적 관리는 무엇이어야 하는지 등을 해결하고 넘어가야 한다.(180쪽)

돌봄노동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공공 부문이 나서서 가족휴가와 의료휴가, 재가간호 등을 지원해야 한다. 국가는 정치적 어려움이 따르더라도 삶의 마지막 순간을 돌보는 문제를 합리적으로 해결할 방법을 찾아내 보건의료 계획에 담아야 한다... 여성과 남성 사이의 역할이 서로에게 이익이 되는 방향으로 분담되어야 하고, 남성성을 바라보는 사회적 관념도 새로워져야 한다. 연로해 거동이 불편한 부모의 몸을 씻기는 일을 남자가 해서는 안 되는 일로 보는 관념부터 일소해야 한다.(181쪽)

교육

역량 접근법은 처음 등장했을 때부터 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학교교육, 가정교육, 비정부기구가 운영하는 성인 및 아동 발달 프로그램 등을 모두 아우르는 교육은 사람이 기존에 지니던 역량을 한층 성숙한 내적역량으로 바꿀 수 있다. 이 같은 변화는 그 자체로 귀중하며 평생에 걸친 만족감의 원천이다.(181쪽)

불법 이주민 자녀의 교육받을 권리를 놓고 다툼 '플라일러 대 도' 소송에서 다수 의

견은 교육이 인간발달 및 기회의 확보에 중추적 역할을 한다는 점을 살피 동등하게 교육받을 권리와 동등한 인간존엄성은 떼려야 뗄 수 없는 관계라고 보았다.(183쪽)

교육은 비판적으로 생각하는 능력, 다른 사람의 처지를 역지사지로 상상하고 이해하는 능력, 세계 역사와 오늘날의 글로벌 경제 질서를 이해하는 능력 등 인문학 및 예술 관련 기술은 책임 있는 민주시민을 육성하기 위해서는 물론, 성인이 나이에 걸맞게 광범위한 역량을 발휘하도록 돕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하다.(184-185쪽)

어린이 의무교육은 성인이 된 뒤 역량의 극적 확대를 가능하게 한다는 점에서 정당화된다. 양질의 교육은 역사적 맥락과 문화적·경제적 상황에 민감해야한다. 역량 접근법이 그러하듯 문화 간 대화를 꾸준히 진행하면 어느 지역이나 유연하게 적용할 수 있는 일반적 교육원리가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185-186쪽)

동물의 권리

동물로 범위를 넓히면 역량 접근법에는 다음과 같은 다섯 가지 기본 입장이 존재할 수 있다.

1. 인간역량 자체가 목적이지만 사람이 아닌 존재의 역량도 인간역량을 증진하는 수단으로서 중요할 수 있다.
2. 인간역량을 최우선으로 고려해야 하지만 사람은 사람이 아닌 존재와도 관계를 맺는다는 사실을 무시해서는 안 된다.
3. 모든 지각 있는 존재의 역량은 그 자체가 목적으로서 중요하다.
4. 식물을 비롯한 모든 살아 있는 생물의 역량은 생태계 일부로서가 아니라 독자적 존재로서 중요하게 생각해야 한다.
5. 1번에서 4번까지의 입장은 전부 미흡하다. 계(종뿐 아니라 생태계) 전체의 역량 증진 그 자체가 역량 접근법의 목적이다.

누스바움은 사람을 부당하게 대우해도 괜찮다는 생각이 옳을 때에만 동물을 부당하게 대우해도 괜찮다는 생각이 옳다고 보았다. 역량 접근법은 동물도 쾌락과 고통의 수동적 수용주체가 아닌 엄연한 능동적 행위주체라고 본다. 발상 자체가 색다르기 때문에 동물의 온갖 활동과 생명을 유지하려는 노력을 더 적절하게 존중해 줄 수 있다.(186-189쪽)

우리는 각각의 종이 어떻게 사는지 주의 깊게 살핀 뒤 고유의 삶의 방식에 맞게 살아가고 행동할 기회를 증진해야 한다. 역량 접근법의 주요 결론은 모든 동물에게는 종 고유의 특징에 어울리는 삶의 기회를 최저수준 이상으로 누릴 권리가 있다는 것이다.(190-191쪽)

환경의 질

역량 접근법을 토대로 삼으면 환경이 인간 삶의 다양한 영역에 미치는 영향을 구분해서 살필 수 있다. 경제성장에만 관심을 쏟는 국가일수록 국민의 평균 건강상태를 악화시키는 정책을 선택하기 십상이기 때문에 역량 접근법은 환경이 한 국가 국민의 건강에 미치는 영향과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구분하는 것이 중요하다.(193쪽)

헌법과 정치구조

특정 역량이 인간존엄성에 어울리는 삶을 살기 위해 중요하다면, 또한 사회의 ‘기본 구조’는 핵심역량을 최저수준 이상으로 보장해야 한다면, 정치구조가 어떻게 핵심역량을 최저수준 이상으로 보장해야 한다면, 정치구조가 어떻게 핵심역량을 보장할 수 있는지 살펴야 한다... 누스바움의 역량 접근법은 최소한의 사회정의 문제에 초점을 맞추고자 하기 때문에 법과 정치구조 문제가 처음부터 핵심 지위를 점한다.(195쪽)

미국의 『독립선언서』는 “권리를 확보하기 위해 인류는 정부를 조직했고 정부의 정당한 권력은 국민의 동의에서 유래한다”라고 분명히 밝혔고, 근본권리를 보장하지 못한 정부는 본질적 임무를 완수하지 못한 정부라고 규정했다. 어떤 역량이 핵심역량 목록에 올랐다면 정부는 법률과 공공정책으로 그 역량을 보호하고 보장할 의무가 있다.(197쪽)

사법적 해석과 역량 접근법은 서로 특별한 친연성이 있다고 할 만하다. 첫 번째 특징은 쟁점으로 떠오른 역량을 중시하며 독립적으로 다룬다는 점이다. 두 번째 특징은 점진주의이다. 세 번째 특징은 맥락주의다. 네 번째 특징은 항상 소수자가 동등한 대우를 받을 권리에 초점을 맞춘다.(204-205쪽)

역량 접근법 이론가는 공공선택 이론, 참여민주주의 이론, 심의민주주의 이론에 관한 연구 성과를 수용해 한층 정교하게 가다듬고 심화하는 것이 필요하다.(210쪽)

역량과 인간심리

정치감정은 두 부분으로 나뉘 연구해야 한다. 첫째, 인간심리 ‘그 자체’에 관해 우리가 아는 것은 무엇인가, 다시 말해 특정 문화의 산물이 아닌 인간심리가 존재하는지 물어야 한다. 둘째, 가족과 학교 등 다양한 사회 환경에 어떻게 개입해야 정치감정이 세계시민의 핵심역량 실현을 지지하는 방향으로 흐를지 고민할 필요가 있다.(211쪽)

역량 접근법을 깊이 이해하고 정당화하고 싶다면, 인간발달 과정을 잘 알아야 한다. 정치감정이 사회 속에서 어떻게 형성되는지도 깊이 이해해야 한다. 정치감정을 연구할 때는 정치적 자유주의의 한계도 심사숙고해야 한다. 사람의 감정을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사람으로 산다는 것이 무엇인지 직접 경험하고 사람이 겪는 슬한 곤경을 다

룬 글을 널리 읽어 인간의 고통과 즐거움을 두루 살필 수 있어야 한다.(212-213쪽)

역량 접근법 이론가라면 심리학의 경험적 연구에서 배울 수 있는 것은 모두 배우려고 해야 한다. 또 소설, 전기, 자서전, 심리치료 사례 등도 열심히 읽어야 한다. 이 모두는 정치적 성취와 안정에 큰 영향을 미치는 인간 경험의 복잡한 요소를 더 깊이 이해할 수 있게 해줄 것이다.(213쪽)

결론

역량 접근법은 기존의 지배적 접근법과 달리 계급·종교·신분·성별에 상관없이 모든 사람의 동등한 존엄성을 강조하는 것을 출발점으로 삼고, 모든 사람이 동등한 존엄성에 어울리는 삶을 살아가게 하는 데 초점을 맞춘다.(216쪽)

역량 접근법은 삶의 질에 대한 비교 설명과 기본적인 사회정의 이론을 무기로 지배적 접근법의 주요 결함을 바로잡고자 한다. 이와 더불어 사회적으로 소외당하거나 주변부로 밀려난 집단의 힘겨운 노력에 관심을 기울인다는 점에서 분배도 중시한다.(216쪽)